



年 度		主 要 事 件	特 徵
제6기 '65-現在	1965.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義 9月總會-林業部門分離復活, 計劃經濟 減少	社會主義組織確立
	1977.	蘇聯 聯邦共和國의 『山林基本法』制定	
	1981. 10. 31	蘇聯聯邦 木材·셀룰로즈·製紙 木材加工工業省으로 統一, (펠프·木材加工業省)	

蘇聯의 山林은 過去 燃料源, 現在는 經濟發展을 위한 資金調達源 즉, 外貨獲得源으로서 林產物의 位置가 重要하며, 지금과 같이 안정된 林業政策·山林資源 開發政策이 推進되기까지는 社會主義國家 建設 이후 수차례 중요한 林政變化가 있었으며 發展

과 退步를 반복하여왔다.

蘇聯의 林政은 建國이後 크게 6期로 區分될 수 있는데 表3과 같이 19세기말 資本主義체제에서 유럽러시아지역의 山林荒廢가 심하였으며 각 시기별 林政 主要事項는 위 表3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새로운 솔잎흑파리 驅除 방법개발 - 地面農劑로 費用싸고 公害도 적어-

솔잎흑파리는 소나무림(林)을 한때 멸종 위기에까지 몰아넣었던 치명적인 해충으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총 28만 ha(국내전체 소나무림은 2백 11만 ha)에 걸쳐 발생, 이를 방제하는데 80억여원의 정부예산이 소요됐었다.

지금까지는 솔잎흑파리가 나무에서 한창 기승을 부리는 4월~6월사이 소나무줄기나 뿌리에 약제를 투입하는 「수간(樹幹)주사」「근부(根部)처리」방식 등 대중적요법과 먹좀벌레 등 천적을 이용해 솔잎흑파리를 잡아먹는 방법등이 함께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비싼방제비용, 인력 소요, 독성약제잔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이 요구돼온 실정이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방제법은 방제효과가 탁월할 뿐더러 기존방제법에 따른 문제

점도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동안 임업연구원의 실험결과 새로운 방제법은 유충폐사율이 85~98%로, 기존방제법의 80~90%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제비용도 ha당 16만원으로 수간주사법의 17만원이나 근부처리방식의 94만원에 비해 크게 절감됐고, 특히 기존 방제법이 농번기에 인력을 동원해야하는 반면 새로운 방제법은 농한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농가일손을 크게 덜수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사용약제도 「에토프」 등 보통독성의 일반농약을 사용, 공해유발소지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11~12월 강원 횡성 평창등 1천ha를 대상으로 새로운 방제법을 실시한후 내년봄부터는 항공기를 이용해 본격적인 방제를 별일 계획이다.